

광주교육청, 유·초·중·고·특 오는12일부터 탄력적 학사운영

밀집도 기준 동시간대 '등교학생 수'로 완화해 '시차 등교', '오전·오후수업' 등 적용 등교수업

광주시교육청이 12일부터 유·초·중·고·특에 대해 1/3, 2/3 병행수업을 진행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을 통해 등교수업을 늘릴 방침이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당초 밀집도 기준을 당일 등교학생 수에서 동시간대 등교학생 수로 완화해 등교수업을 받는 학생을 늘린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유지될 경우 학생 300명 이하 학교는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단계로 완화되면 유·초·중·고·특 모두 2/3 병행수업을 진행하며, 초등학교 900명·중학교 800명·고등학교 900명 이하 학교까지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유·초·중학교는 동시간

대 등교학생 수 1/3 이내에서 '시차 등교', '오전·오후 등교', '학년별 휴학제', '격일 등교' 등의 방식을 적용해 등교수업을 받는 학생을 늘린다.

특히 초등학교는 한글책임교육 및 기초학력 결손 예방을 위해 1·2학년 우선 등교를 실시한다. 고·특수학교는 동시간대 등교학생 수 2/3가 적용되며,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돌봄은 정

상적으로 운영한다.

장휘국 교육감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동시간대 등교인원 비율을 유지해 운영하되, 교육공동체들의 협의를 바탕으로 학생 등교일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며 "시교육청은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로부터 학생, 교직원들의 안전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호기자

순천대 창업지원단, '창업동아리 모의투자(IR)경진대회' 개최

모의투자자들이 모의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 창업지원단은 최근 교내 국제문화컨벤션관에서 '2020년 창업동아리 모의투자(IR)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2020년 창업동아리의 각 팀별 우

수한 창업아이디어와 시제품에 대해 순천대학교 교수 및 창업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모의투자자들이 모의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투자유치에 취약한 학생들에게 실전 경험을 함양하면서도 현실감이 더해진 대회로 조성되었다.

대상(창업지원단장상)은 '문화 상품 디자인'을 창업아이템으로 개발한 'auer studio 팀(팀장 황다영, 패션디자인학과)', '다용도 와펜'을 창업아이템으로 개발한 'Be in one's Youth팀(팀장 조광현, 패션디자인학과)'이 공동으로 수상하였고, 최우수상(창업지원단장상)은 '발효골드 팀(팀장 이주화, 식품공

학전공)'이, 우수상은 '쿠킴마 팀(팀장 양안나, 조리과학과)', 'No Entry 팀(팀장 조현정, 패션디자인학과)'이 수상하는 등 총 8팀이 수상했다.

발표 평가 후 모의투자자의 투자액 순으로 수상팀을 선정했고, 선정된 8개 팀에는 대상 200만 원을 비롯해 모의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동아리 추가 지원금으로 지급되어 총 1천만 원이 수상자들에게 지원되었다.

창업지원단은 이번 수상 팀들의 아이디어에 대한 기술적 보호와 사업화를 위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전문가 멘토링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곡성교육청 전직원 갑질예방 교육 실시

청렴7 계명 낭독...수수 없는 깨끗한 곡성 교육 만들겠다는 의지 다짐

곡성교육지원청은 6일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갑질 예방교육 및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실시하였다.

갑질 예방교육은 교육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갑질'은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로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서로 배려와 존중, 신뢰와 이해가 바탕이 되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

하였다. 이후 전직원은 갑질근절 교육 및 갑질판단의 현장 적용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영상 함께 시청하였다.

이어서 청렴실천 다짐대회에서는 전 직원이 함께 '청렴다짐 7계명'을 낭독함으로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없는 깨끗한 곡성교육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곡성=김광휘기자

무안교육청, '배워서 남주자!' 학부모·지역민 재능기부단 양성

무안군 지원...학부모와 지역민 대상 30시간 교육과정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란)은 무안군 지원으로 학부모와 지역민 대상 30시간 교육과정 '배워서 남주자' 무안모아 학부모 아카데미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있다 책놀이독서코칭지도사, 3Rs지원을위한 자기주도학습사, 밸런스워킹PT지도사, 전래놀이지도사 총 4개 강좌를

개설하고 재능기부를 위한 배움의 열기를 불태우고 있다.

무안모아 학부모 아카데미는 학부모와 지역민이 먼저 배워서 학생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온라인교육과 대면교육을 병행하여 운영하며 교육과정 수료 후 자격증 취득시 학교와 마을학교를 연계하여 재능기부를 실천하는 품앗이 교육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특별히 가진 재능이 없어서 재능기부는 남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학부모 아카데미 재능기부자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배움의 기회를 갖게되어 매우 기쁘고, 또 재능을 기부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리고 잘 배워서 코로나19로 학습이 힘든 우리아이들에게 배움을 나눠주고 싶다'고 참여 소감을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장성교육청, 내고장 인재육성 고교 진학설명회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최미숙)은 6일 관내 중학교 교감 및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을 대상으로 내고장 인재육성 고등학교 진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고등학교별 빛깔 있는 학생중심 교육활동 소개와 홍보의 시간을 가졌다.

일반고의 대입 변화 방향을 반영한 교육활동의 다양화, 취업중심 특성화고의 인성

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중학교 자유학년제의 취지의 연계교육 차원에서 열린 대화의 시간이 되었다.

최미숙 교육장은 "문물여장성에서 내고장의 역사를 매우고 훌륭한 인재가 되어 내고장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라며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활동에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